

## 관광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지출흐름분석』 방법론의 모색

### Impact of Tourism Development on the Regional Economy : Adopting the *Tourist Money Flow Analysis*

주성재\*

요약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입-산출분석, 관광소득승수분석, 노동창출효과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왔으나, 2차적 자료가 부족한 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 조사에 근거하여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사업체로 유입되고 사업체에 의해 지출되는 화폐흐름을 추적하는 '관광지출흐름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3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부터, 이 방법이 관광개발이 유발하는 연간 지출액의 규모와 그 지리적 범위를 추정하게 하고 생산액, 노동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대한 의미있는 지수를 측정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관광개발, 지역경제파급효과, 관광지출흐름, 관광사업체

#### 1. 서론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어떤 지리적 범위를 갖는가 하는 문제는 관광을 지역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가와 지역계획가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 분석을 위하여 투입-산출분석, 관광소득승수분석, 노동창출효과분석 등을 사용하여 그 파급효과에 대한 거시적 지수를 도출하고 그 의미를 찾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입-산출분석은 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관광산업이 일정 영역을

갖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하여 알려준다. 그러나 이것은 '관광산업' 정의의 모호성, 지역 산업연관표 추정의 오류가능성, 자료의 제한성 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 관광시설이 개발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효과를 알려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관광시설이 개발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발생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사업체로 유입, 다시 유출되는 화폐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것을 '관광지출흐름분석(Tourist Money Flow Analysis)'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방법은 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의 효과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관광개발의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관광개발의 단계별 효과중 관광시설이 완공된 후 관광객의 관광행위와 관광사업체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인 개발후 효과)이고 그 중에서도 사회·문화적인 효과, 환경적인 영향 등을 제외한 경제적 효과 부분이다. 경

제적 효과 중에서 관광지출흐름분석이 추적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지출로 인한 직접효과(direct effect), 관광사업체 지출 및 관광사업체종사자 지출에 의한 간접효과(indirect effect) 부분이고 산업구조 전반적인 효과, 고용증대 승수효과, 그리고 직·간접 지출로 인하여 순환발생하는 유발효과(induced effect)는 제외된다. 그림 1은 관광개발의 효과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나타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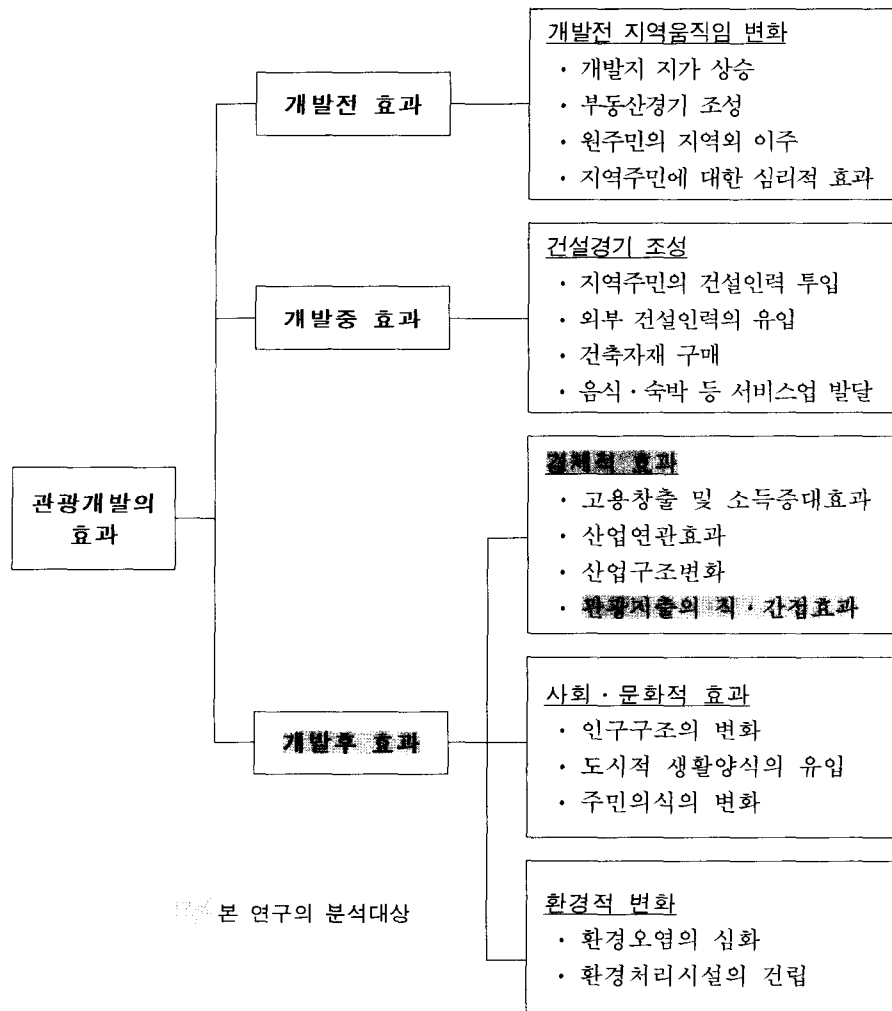


그림 1. 관광개발의 효과와 관광지출흐름분석의 대상

## 2. 기존 연구방법론의 검토

### 1) 관광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관광개발 또는 관광산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다른 산업과 비교하고 총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1993)는 산업분류를 기초로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전국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산출승수효과나 소득승수효과는 전산업 평균보다 높지 않으나 고용승수효과와 부가가치승수효과는 전산업 평균보다 높음을 밝히고 있다.

관광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사례연구는 단일사업체 개발의 효과에 대한 연구, 여러개의 관광시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관광단지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일정 행정단위내의 관광산업의 역할을 다룬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단일사업체 개발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서 한동호·김영성(1986)은 천마산스키장과 포천스키장이 개발됨으로써 발생한 소득, 고용, 지가의 변화, 그리고 인구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스키장개발 효과에 대한 지수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단순한 서술에 그쳤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광개발의 효과를 정리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집단관광시설에 대한 연구로서 김두철(1991)은 백암온천을 찾은 관광객의 지출을 숙박형태별로 조사하여 관광소득승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 관광개발로 인한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32%에 달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는 온천개발의 효과 분석을 고

용인거주지 분석, 토지소유권 분석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득승수 추정방법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승수효과 분석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일정 행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를 대상으로 투입-산출분석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있다(김태보, 1990; 정준무, 1994).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각각의 기준에 의해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전국의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몇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이 관광개발의 지역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에 있었지만 관광개발의 효과를 해석하고 그 시사점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사례연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Milne(1992)는 남태평양의 5개 섬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체의 수입을 조사하여 관광소득승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5개 섬 공통적으로 관광이 충분한 소득승수효과를 유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Johnson과 Moore(1993)는 미국 오레곤주의 한 수변지역 관광객에 대한 지출조사를 기존에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조사지역 이외에 대안적인 관광계획을 가진 경우 그 영향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ammes(1994)는 하와이의 관광개발로 인한 고용·임금의 변화, 지가의 변동 등을 서술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임금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의 지가는 크게 상승한 것이 조사되었다. Archer(1995)는 영국 버뮤다섬을 대상으로 사업체조사와 관광객지출조사

를 병행하여 투입-산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관광산업의 효과가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사례에서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사례연구가 섬과 같이 격리된 지역 - 제주도, 하와이, 버뮤다 등 -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지역들이 외부지역과 차단된 독립된 경제단위로서 관광개발의 효과를 분명하

게 보여줄 수 있고 하나의 행정단위로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료를 직접 조사에 의존하여 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투입-산출분석을 소지역단위에 적용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조사에 의한 자료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 관광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주요 사례연구

연구	대상지역	방법론	특기사항
한동호 김영성 (1987)	천마산, 포천스키장	· 고용창출효과분석 · quasi-experimental	· 관광개발로 인한 소득, 고용, 지가변화, 인구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 분석
김태보 (1990)	제주도	· input-output analysis	· 관광산업으로 음식숙박업, 여행알선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교통업, 과일재배, 양봉, 목각석제품제조 등을 포함 · 수요-공급혼합법으로 지역산업연관표작성
김두철 (1991)	백암온천	· 관광소득승수분석 · 고용창출효과분석 · quasi-experimental	· 숙박형태별로 관광소득승수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 관광개발로 인한 가구당 소득증대액 계산(월평균소득의 32%) · 고용인거주지분석, 토지소유권변화분석
정준무 (1994)	제주도	· input-output analysis	· 관광산업으로 도소매, 음식점, 숙박, 운수보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을 포함 · 입지상법과 수요공급혼합법에 지역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Milne (1992)	남태평양군도 (5개섬)	· 관광소득승수분석	· 관광객소비로부터 발생하는 각 사업체의 수입을 조사분류 · 5개군도의 관광소득승수를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충분한 소득효과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견
Johnson Moore (1993)	미국오레곤주 2개 county	· input-output analysis	· 지방정부에서 기존에 작성한 IMPLAN input-output system으로 분석 · 조사지역방문의 강도에 따라서 3가지 영향을 측정된 결과, 다른 대안적인 관광계획을 가진 경우 그 영향이 적음
Hammes (1994)	미국 하와이섬	· quasi-experimental	· 하와이섬의 고용임금변화, 지가의 변동 등을 서술 · 고용시장이 개방적이었으므로 임금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서부지역의 지가는 최근 몇년간 크게 증가하였음
Archer (1995)	영국령 버뮤다섬	· input-output analysis	· 정부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체전수조사와 공항출국시 실시한 지출조사를 이용하여 input-output 분석 · 버뮤다경제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의 효과는 과거보다 줄어들어 재정사업 부문보다 뒤떨어짐

셋째, 대부분의 연구가 관광사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광객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광객에 대한 조사만으로 소득승수를 추정하였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

## 2) 기존 연구방법론의 비교·검토

이상의 사례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론을 비교·검토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관광에 적용하는 것은 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관광산업이 무엇인지를 산업연관표에서 사용되는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은 음식, 숙박, 여행알선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음식, 숙박업이 모두 '관광'이라는 매개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관광산업을 정의하는 데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산업분류상의 문제를 일단 유보할 때 투입-산출분석은 특정산업의 생산유발효과, 고용·소득승수효과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구조적 상호의존성과 성장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목표하는 고용·소득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의 투입이 필요한지를 계산할 수도 있다. 전국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유용한 결과를 제시(한국관광공사, 1993)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연관표는 지역단위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투입-산출분석을 특정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산업연관표에서 지역

산업연관표를 추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추계의 방법에는 입지계수법, 수요·공급혼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sup>2)</sup>, 추계의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가정이 설정되기도 하고 추계에 사용되는 자료 또한 대지역(우리나라의 경우 도)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지역에 적용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모두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외국의 경우에 소지역에 대한 산업연관표가 미리 준비되었거나(Johnson and Moore, 1993), 사업체에 대한 조사로 산업연관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료가 준비되었던 것(Archer, 1995)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다음으로 관광소득승수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관광소득승수분석은 관광객지출, 지역주민의 소비성향 등을 조사하여 관광소득승수를 계산하고 관광개발로 인한 소득증대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sup>3)</sup>. 이것은 관광시설입지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며 관광개발의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추정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관광소득승수분석에서 사용되는 관광객지출조사 및 주민소비성향조사를 통한 소득승수 추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관광객 및 주민에 대한 조사의 대표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수집되는 자료가 응답자의 특성에 좌우되며, 조사의 계절적 시점에 따라 지출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몇 개의 요인을 사용하여 총량을 추정하는 거시적 모형 역시 추정과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관광객지출만으로 총량을 추정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개발의 효과를 비교적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사업체가 유발한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출신지, 거주지 및 구매행태를 조사함으로써 관광산업이 유발하는 고용의 양과 고용인 거주지의 지리적 한계를 밝힐 수 있다. 이것은 고용유발효과의 양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특성 등 질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며 사업체단위로 조사함으로써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대부분 기술적 분석에 그치며 계량적 분석, 또는 지수를 제공하지 못한다.

관광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틀어 유사실험방법(quasi experimen-

tal method)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소규모 지역 단위의 통계를 이용하여 특정시설 개발 전후의 인구, 산업, 지가, 토지이용 등을 도표로 비교함으로써 개발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가시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며 비모수추정(non-parametric test)으로 변화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변화라는 것이 관광개발과 관련없는 사건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고용창출효과분석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질적인 자료만을 제공하며 계량화되지 못한다. 표 2는 이상의 주요 방법론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 중에서 관광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지리적 범위와 규모의 추정

표 2. 관광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주요 연구방법론의 비교

방법론	성격	장점	단점
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간 투입-산출분석으로 생산유발효과, 고용소득승수, 산업연관효과 등 분석</li> <li>특정지역의 산업연관효과분석에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산업의 구조적 상호의존성과 성장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li> <li>소비, 투자, 외화획득 등에 따른 관광산업구조분석에 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단위자료를 산업연관표로부터 추계함으로써 오는 비현실적인 가정 및 부정확성</li> <li>관광산업의 정의에 대한 자의적 규정 필요</li> </ul>
관광소득 승수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객지출, 지역주민의 소비성향 등을 조사하여 관광소득승수를 계산, 소득증대효과 추정</li> <li>소규모지역에 입지해 있는 다수의 관광시설의 소득발생효과 추정에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시설입지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을 계량적으로 파악</li> <li>관광이 발생시키는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간접효과, 유발효과를 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객지출조사, 주민소비성향조사의 불확실성 존재</li> <li>조사의 대표성문제(계절적 변이, 설문응답자의 특성 등) 존재</li> <li>여러가지 조사수행의 통제 문제</li> </ul>
고용창출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출신지, 거주지 및 구매행태를 조사</li> <li>특정사업체 또는 일군의 사업체에서 유발하는 고용의 양과 지리적 한계를 밝히는 데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유발효과의 양 뿐 아니라 질적인 요소 분석 가능</li> <li>사업체단위로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통제가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량적 분석(또는 지수)을 제공하지 못함</li> </ul>
유사실험방법 quasi-experim- ental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시설 개발전후의 인구, 산업, 지가, 토지이용 등을 도표로 비교함으로써 개발의 효과를 판단</li> <li>소규모 지역단위 통계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표를 통하여 지역의 변화를 쉽고 가시적으로 이해</li> <li>비모수추정으로 변화의 유의성 판단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개발과 관련없는 사건이 변화의 요인이 될 가능성 존재</li> <li>많은 경우 질적인 자료만을 제공하며 계량화되지 못함</li> </ul>

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입-산출분석과 관광소득승수분석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 모두 파급효과의 규모는 밝힐 수 있으나 그 지리적 범위와 강도는 밝히지 못한다. 더군다나 투입-산출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며 관광소득 승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현지조사에 의해 얻을 수 는 있겠으나 그 추정의 방법에 대해 확신을 얻을 수 없다.

### 3.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도입 : 관광지출 흐름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석방법을 위하여 '관광지출흐름(tourist money flow)'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다. 관광지출흐름(또는 간단히 지출흐름)이란 관광객의 지출에서 비롯하여 관광사업체로 유입되고 다시 관광사업체의 지출에 의해 다른 사업체, 가게, 또는 공공부문으로 유입되며 이후 또 다른 순환과정을 거치는 돈의 흐름을 말한다. 관광지출흐름은 일정한 규모와 지리적 범위를 갖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면 관광개발로 인해 발생한 돈이 어디에 얼마나 흘러갔는지 알 수 있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단계별, 항목별 관광지출흐름 측정의 틀을 보여준다. 먼저 1단계 지출흐름(first-tier money flow)에서 관광객은 관광사업체에 대해 지출한다. 관광사업체는 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숙박·관광시설과 이들 시설의 주변에 위치한 식당, 주점, 소매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의 관광사업체는 2단계 지출흐름(second-tier money flow)으로서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지출하며 물자 및 서비스구매를 하고 임

대료, 공공요금, 세금 등의 항목으로 지출한다. 대규모 관광시설의 수입 중 일부는 감가상각, 종업원 퇴직금, 순이익 등 경상외수익으로 적립되며 소규모 식당, 소매상 등의 순이익은 사업경영자의 수입(임금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음)으로 편입된다. 2단계 지출흐름은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리적 범위를 갖게 된다.

3단계에서 종업원 또는 식당·소매상 등의 사업경영자는 자신이 얻은 소득을 지출, 저축 또는 송금하게 된다. 이러한 3단계 지출흐름(third-tier money flow) 역시 지리적 범위와 규모를 갖는다.

2단계에서 각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다시 물자 및 서비스 제공업자, 임대업자, 공공기관 등의 지출을 통해 재순환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3단계에서 가계에 의해 지출된 금액은 그 지출항목에 따라 또 다른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거시적인 지표가 아닌 미세한 조사에 의하여 이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관광지출흐름분석이 관광개발의 직·간접효과를 밝히는 데에 국한되고 유발효과는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광지출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광사업체에 대한 조사, 그리고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료구득 방법은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된다. 즉, 현지조사로 자료를 구득함으로써 현실감있고 신뢰성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있는 반면에, 자료를 제공하는 측에서 과다 또는 과소한 수치를 제공할 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점은 어느 조사에나 해당되는 것으로서 신뢰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제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 분석은 관광사업체의 수입·지출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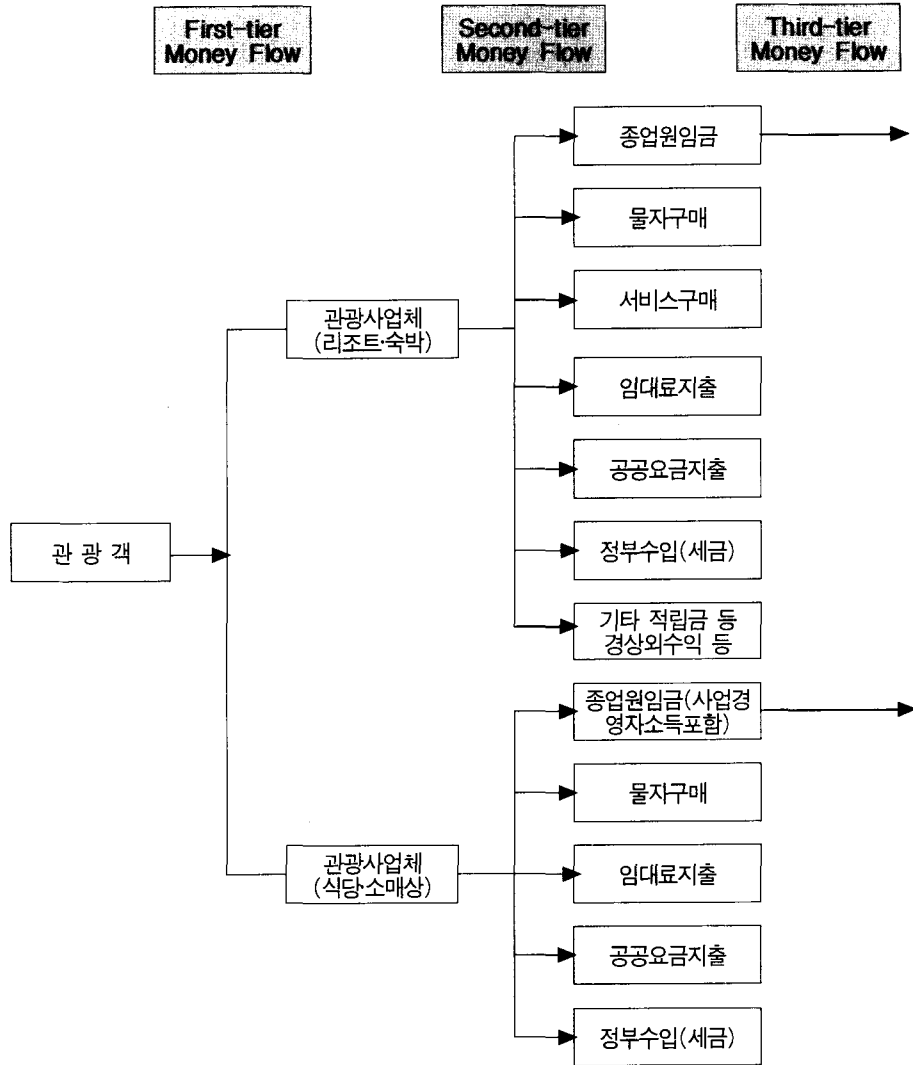


그림 2. 단계별·항목별 관광지출흐름 측정의 틀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단, 관광사업체의 매출액 추정에 활용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단계별 추적의 방법은 다음 절의 사례조사에 의해 정리하기로 한다.

#### 4. 단계별 관광지출흐름의 분석 : 사례조사

##### 1) 사례지역 및 조사개요

관광지출흐름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사례지역으로 대규모 관광시설 또는 집단적 관광시설이 입지하여



관광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3개의 지역을 선정하였다. 숙박시설, 스키장, 골프장 등 위락시설이 갖춰진 리조트지역 중 강원도 평창군의 용평리조트 일대와 횡성군의 성우리조트 일대, 그리고 온천시설이 집단적으로 위치한 충북 충주시의 수안보온천 일대가 그곳이다. 용평리조트 주변의 횡계리, 성우리조트 주변의 자포곡리, 수안보온천이 있는 온천리가 각각 세 지역에 대한 서비스공급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설문조사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광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룬다. 관광객에 대한 지출조사는 관광사업체 조사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공하는데 그친다<sup>4)</sup>.

## 2) 단계별 관광지출흐름 분석

### (1) 관광객 지출로 인한 1단계 관광지출흐름

#### ① 리조트·숙박업체로의 지출흐름

관광지출흐름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관광객의 지출로부터 시작된다. 관광객지출에 의한 1단계 관광지출흐름은 관광객에 대한 지출조사에 의한 총량추정과 관광사업체에 대한 매출액조사의 두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중 관광객지출조사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은 관광객지출이 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하며 조사의 정확성, 추정상의 오류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관광사업체에 대한 매출액조사의 방법이 권유된다.

단일업체인 용평리조트의 경우 연간 317억원, 성우리조트의 경우 149억원의 연간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sup>5)</sup>. 수안보온천의 숙박업체는 호텔, 여관·온천장, 그리고 콘도미니엄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호텔 18억6

천만원, 여관·온천장 1억9천만원, 콘도미니엄 7억 2천만원으로 조사되었다.

#### ② 식당·소매상으로의 지출흐름

리조트·온천 관광객은 리조트내 또는 숙박업체 내에서 제공하는 숙박, 체육·휴양기능, 기타 부대 기능에 대해 지출할 뿐 아니라 주변 시가지의 식당, 주점, 다방, 소매상 등에서도 지출한다. 용평리조트와 성우리조트의 주변에 있는 면급도시인 횡계리, 자포곡리가 리조트 관광객의 구매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수안보온천의 경우는 숙박업체 및 온천을 따라 발달해 있는 시가지인 온천리에서 관광객의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들 면급도시의 식당, 주점, 다방, 잡화상, 당구장, 사진현상소 등에도 관광객의 지출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용평리조트의 구매권에 속하는 횡계리 소재 식당·다방 등의 업체당 연간매출액은 9천7백만원으로서 성우리조트 구매권인 자포곡리의 6천백만원보다 월등히 많으나 소매상은 자포곡리가 8천7백만원으로서 횡계리의 7천3백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안보온천의 사업체는 업체당 매출액 6천5백만원 내외로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사업체의 매출액이 모두 관광개발효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급도시는 해당 면의 거주자에게 중심지기능(central place function)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광객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 사업체의 매출액중 관광개발효과에 의한 부분, 즉 관광객지출에 의한 부분을 산출하기 위해 각 업체 매출액에 대한 관광객 기여비율을 기중치로 설정하여 관광개발효과 기여분을 계산할 수 있다<sup>6)</sup>. 단, 온천리의 경우 면급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곳은 전적으로 온천개발에 의해

표 3. 리조트·숙박업체에 의한 2단계 지출흐름의 구조

(단위: 백만원, %)

구 분	용평리조트	성우리조트	수안보온천		
			호 텔	여관온천장	콘도미니엄
연간매출액	31,744(100)	14,933(100)	1,856.2(100)	192.6(100)	720
경상비지출	23,251(73.2)	9,572(64.1)	1,189.8(64.1)	143.9(74.7)	1,326
물자구매	8,000(25.2)	1,668(11.2)	338.7(18.2)	25.8(13.4)	360
서비스구매	651( 2.1)	1,602(10.7)	20.3( 1.1)	0.13( 0.1)	18
제경비	2,000( 6.3)	-	107.8( 5.8)	13.8( 7.2)	156
임대료	-	-	13.7( 1.0)	3.6( 1.9)	72
세 금	1,800( 5.7)	426( 2.9)	77.5( 4.2)	17.0( 8.8)	180
임 금	10,800(34.0)	5,876(39.3)	631.8(34.0)	83.6(43.4)	540
경상외수익	8,493(26.8)	5,361(35.9)	666.4(35.9)	48.7(25.3)	△ 606

주 : 1) 업체당 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임.

2) '세금' 항목은 용평리조트, 성우리조트의 경우 지방세만을 포함하며 수안보온천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함.

3) 성우리조트의 제경비는 경상의 수익(현재 모두 확장공사에 재투자됨)에 포함되어 있음.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체 매출액이 모두 관광 개발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중치를 적용하면 횡계리 사업체들의 경우, 식당·다방은 연간 매출액의 60%인 5천8백만원, 소매상은 55%인 4천만원이 관광개발(용평리조트)로 인하여 발생하고, 자포곡리 사업체의 경우, 식당은 전체의 28%인 1천7백만원, 소매상은 15%인 1천3백만원이 성우리조트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2) 관광사업체에 의한 2단계 관광지출흐름

① 리조트·숙박업체에 의한 지출흐름

관광객에 의해 관광사업체로 흘러들어간 관광지출은 관광사업체의 지출에 의해 2단계 관광지출흐름으로 다시 순환된다.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사업체의 지출구조를 살펴야 한다. 사례지역 리조트·숙박업체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중 64~75%가 경상비로 지출되며 나머지는 감

가상각, 적립, 재투자 등의 경상의 수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경상비지출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종업원임금, 물자구매, 서비스구매 등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지출흐름구조중 종업원 임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2단계 관광지출흐름으로 정착 지가 결정된다. 우선 물자구매의 지리적 범위를 살펴보면 용평리조트와 성우리조트의 지역내(군내) 물자구매비율은 26% 정도이며, 권역내(도내)까지 확대할 때에도 그 비율은 50% 내외에 불과하여 물자구매의 지역외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용평리조트 연간 물자구매액 80억원중 지역내 구매비율은 26%에 불과하며 17%를 강릉에서 10%를 기타 강원도에서, 나머지 47%를 수도권에서 구매하고 있다. 성우리조트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연간 물자구매액 16억7천만원중 지역내에서 26%, 원주에서 15%를 구매하며 기타 강원도에서는 없고 나머지 59%를 수도권에서 구매한다.

표 4. 리조트·숙박업체 물자구매의 지리적 범위

(단위: 백만원, %)

구 분	용평리조트	성우리조트	수안보온천		
			호텔	여관·온천장	콘도미니엄
연간 물자구매액	8,000(100)	1,668(100)	338.7(100)	25.8(100)	360(100)
지역내*	2,064(25.8)	426(25.5)	163.9(48.4)	22.4(86.8)	198(55.0)
주변중심도시*	1,384(17.3)	257(15.4)	-	-	-
권역내(도내)	808(10.1)	-	46.3(13.7)	2.5( 9.6)	27( 7.5)
수도권	3,744(46.8)	985(59.1)	118.1(34.9)	0	108(30.0)
기타 지역	-	-	10.5( 3.1)	0.9( 3.6)	27( 7.5)

주 : 1) 업체당 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임.

2) '지역내'는 관광시설이 위치한 시·군내를 의미하며 주변중심도시는 용평리조트는 강릉, 성우리조트는 원주를 말함

수안보온천의 경우 호텔과 여관·온천장은 뚜렷한 구매패턴의 차이를 보인다. 즉 호텔은 업체당 연간 3억3천만원, 여관·온천장은 2천6백만원을 구매하나 여관·온천장의 지역내(충주시내) 물자구매비율이 87%에 달하는 반면 호텔은 48%에 불과하다. 반면에 여관·온천장은 수도권에서 물자구매를 전혀 하지 않는데 비해 호텔은 물자구매의 35%를 수도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안·경비, 조경, 청소, 객실보수용역 등의 서비스구매에 대하여 살펴보면, 용평리조트의 경우 연간 외주서비스 구매액 6억5천만원중 지역내로 26%, 강릉으로 44%가 지출되며 27%가 수도권으로 지출된다<sup>7)</sup>. 한편 성우리조트의 연간 외주서비스 구매액 16억원중 83%가 지역내로, 15%가 주변중심도시인 원주로 지출되며 수도권으로의 지출비율은 2.3%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지역내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설 관련 서비스 구매가 많으며 이는 많은 부분 지역주민을 활용한 노무·일용직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수안보온천의 호텔은 물자구매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에서의 구매비율이 51%나 된다. 여관·온천장은 외주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한다 하더라도 지역내를 이용한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제경비로 지출되는 금액, 즉 용평리조트 20억원, 수안보온천의 1억원, 여관·온천장 1천4백만원 등은 모두 권역내(도내)로 지출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들 경비가 공기업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네트워크에서 궁극적인 정착지를 찾아야 할 것이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1차적으로 도내로 유입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안보온천의 숙박업체중 임대하고 있는 4개 업체가 지출하는 연간 임대료는 임대하지 않는 업체를 포함해 평균할 때 호텔 1천3백만원, 여관·온천장 360만원, 콘도미니엄 7천2백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임대료를 임대주의 거주지로 판단할 때 47%가 지역내로, 53%가 수도권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용평리조트의 지방세납부액은 18억원, 성우리조트는 4억3천만원에 달하는데 이들의 최종 목적

지는 군과 도로 나뉘어 질 수 있으나 그 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모두 권역내(도)로 가는 것으로 산정한 다<sup>8)</sup>. 한편 수안보온천 숙박업체의 국세 포함 세금 납부액은 호텔 7천7백만원, 여관·온천장 1천7백만원, 콘도미니엄 1억8천만원인데 이를 시, 도, 국세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보면 지역내로 62%, 권역내로 26%, 나머지는 중앙정부로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sup>9)</sup>.

이상에서 항목별로 서술한 리조트·숙박업체에 의한 2단계 지출흐름을 지역별로 합산하여 종합할 수 있다. 용평리조트의 연간 경상비중 3단계 지출 흐름에서 지리적 범위가 결정되는 임금을 제외한 125억원중 지역내(군내) 지출비율은 17.9%, 주변 중심도시(강릉) 13.4%, 기타 강원도(권역내) 37.2%로서 권역내 전체로의 지출비율은 68.5%에 달한다. 여기서 기타 강원도(권역내)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전기·수도·가스 등의 제경비, 지방세 지출을 모두 이곳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제경비와 지방세를 제외할 경우 이 단계에서의 지출흐름은 물

자구매리는 경로에 의해 주도된다.

한편 성우리조트의 연간 경상비중 임금을 제외한 37억원중 지역내(군내) 지출비율은 47.3%, 주변 중심도시(원주) 13.5%, 기타 강원도 11.5%로 권역내 전체의 지출비율은 72.4%에 이르러 용평리조트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것은 지역내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서비스구매에 의한 기여가 크며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물자구매의 기여가 크기 때문이다. 권역내(기타 강원도)로의 지출은 단지 지방세 납부라는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안보온천 숙박업체의 연간 경상비중 임금을 제외한 3억5천만원중 지역내(충주시내) 지출비율은 43.3%, 기타 충북 30.7%로 권역내 전체의 지출비율은 74%에 달하여 사례지역중 지역외로의 지출비율이 가장 작은 것을 보여준다. 이 단계에서 지출 흐름의 지리적 범위는 물자구매와 세금납부, 그리고 제경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수도권으로의 지출비율이 높아진 것은 물자구매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표 5. 식당·소매상에 의한 2단계 지출흐름의 구조

(단위: 만원, %)

구 분	횡 계 리		자 포 곡 리		온 천 리	
	식당다방주점	소매상기타	식당다방주점	소매상기타	식당다방주점	소매상기타
연간매출액	9,712(100)	7,296(100)	6,094(100)	8,667(100)	6,494(100)	6,570(100)
경상비지출	7,691(79.2)	5,369(73.6)	4,074(66.9)	5,332(61.5)	4,366(67.2)	5,425(82.6)
물자구매	3,773(38.8)	3,694(50.6)	2,061(33.8)	3,220(37.2)	1,839(28.3)	4,290(65.3)
제경비	548( 5.6)	932(12.8)	549( 9.0)	848( 9.8)	482( 7.4)	354( 5.4)
임대료	269( 2.8)	338( 4.6)	136( 2.2)	246( 2.8)	555( 8.5)	510( 7.8)
세 금	415( 4.3)	375( 5.1)	255( 4.2)	1,018(11.7)	238( 3.7)	106( 1.6)
임 금	2,687(27.7)	30( 0.4)	1,074(17.6)	0	1,251(19.3)	165( 2.5)
순 이 익	2,021(20.8)	1,927(26.4)	2,020(33.1)	3,335(38.5)	2,128(32.8)	1,145(17.4)

주: 업체당 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임.

호텔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다. 서비스구매, 임대료에 의한 효과는 미미하며 권역내(충북)로의 지출은 제경비에 의한 기여도가 크다.

② 식당·소매상 등에 의한 지출흐름

사례지역 면급도시의 시가지에 있는 식당·소매상 등의 연간 매출액중 경상비로서 2단계 지출흐름으로 지출되는 비율은 60~80%에 이른다.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의 20~40%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경영자(소유주)의 수입, 즉 순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3단계 지출흐름에서 사업경영자 지출에 의하여 그 지리적 범위가 결정된다. 지출흐름구조에 있어 세 지역 모두 물자구매와 종업원 임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우선 물자구매의 지리적 범위를 살펴보면 식당·다방 등의 경우 세 지역 공통적으로 지역내와 주변중심도시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83~95%로 매우 높다. 그러나 황계리의 식당 등은 주변중심도시(강릉)에서의 구매비율이 53%로 지역내(평창군)보다 더 높은 반면 자포곡리는 지역내(횡성군)에서의 구매비율이 57%로 주변중심도시(원주)보다 높다는

차이를 나타낸다.

소매상은 식당의 물자구매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황계리와 자포곡리의 업체 모두 지역내 물자구매비율이 작다는 것은 같으나 황계리의 소매상은 수도권과 주변중심도시에서 주로 물자를 구매하는 반면 자포곡리의 업체들은 96%를 주변중심도시인 원주에서 구매한다. 온천리 사업체들은 식당과 소매상에 있어 모두 지역내 물자구매비율이 높으나 소매상의 구매지역이 권역내, 수도권 등으로 식당보다 약간 다양화되어 있다.

이밖에 임대건물을 사용하는 업체인 경우<sup>10)</sup> 임대주의 거주지에 의해 임대료의 지출지역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제경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리조트·숙박업체와 마찬가지로 모두 권역내(도내)로 지출되는 것으로 산정하며 세 지역의 사업체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시, 도, 국세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각 지역별 지출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매출액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 사업체의 지출중 관광개발효과에 의한 부분, 즉 관광객지출에 의한 부분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

표 6. 식당·소매상 물자구매의 지리적 범위

(단위: 만원, %)

구 분	황 계 리		자 포 곡 리		온 천 리	
	식당다방주점	소매상기타	식당다방주점	소매상기타	식당다방주점	소매상기타
연간 물자구매액	3,773(100)	3,694(100)	2,061(100)	3,220(100)	1,839(100)	4,290(100)
지역내	1,298(34.4)	133( 3.6)	1,182(57.3)	26( 0.8)	1,754(95.4)	3,878(90.4)
주변중심도시	1,996(52.9)	1,725(46.7)	521(25.3)	3,088(95.9)	-	-
권역내(도내)	143( 3.8)	44( 1.2)	47( 2.3)	74( 2.3)	-	223( 5.2)
수도권	336( 8.9)	1,792(48.5)	311(15.1)	32( 1.0)	50( 2.7)	133( 3.1)
기타지역	-	-	-	-	35( 1.9)	56( 1.3)

주: 업체당 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임.

를 위하여 앞서 사용하였던 각 업체 매출액에 대한 관광객 기여비율을 가중치로 설정하여 관광개발효과 기여분을 계산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식당·소매상에 의한 2단계 지출흐름을 관광개발의 효과에 의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종합하면 관광개발에 의한 황계리 사업체의 업체당 연간 매출액 5천3백만원중 79%인 4천2백만원이 경상비로 지출되며 이중 경상비중 임금을 제외한 3천만원에서 지역내(군내) 지출비율은 28.8%, 주변중심도시(강릉) 37.8%, 기타 강원도 14.0%로 집계된다. 자포곡리 사업체의 관광개발에 의한 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천6백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경상비 1천만원중 임금을 제외한 898만원중 지역내(군내) 지출비율은 43.1%, 주변중심도시(원주) 17.5%, 기타 강원도 16.7%이다. 수안보온천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6천5백만원중 경상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매출액의 71%인 4천6백만원이며, 이중 임금을 제외한 3천6백만원중 지역내(충주시내) 지출비율은 75.7%, 기타 충북 17%인 것으로 집계된다.

(3) 관광사업체 종사자에 의한 3단계 관광지출흐름  
2단계 관광지출흐름에서 관광사업체에 의해 지출된 종업원 임금은 이제 3단계 관광지출흐름을 통하여 그 지리적 범위가 결정된다. 3단계 관광지출흐름

을 리조트·숙박업체 종사자와 식당·소매상 종사자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당·소매상의 경우에는 종업원과 소유주(경영자)의 지출이 모두 분석의 대상이 된다.

① 리조트·숙박업체 종사자에 의한 지출흐름  
리조트·숙박업체 종사자의 1인당 연간 소득은 1,150~1,500만원 수준으로서 성우리조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평리조트, 수안보온천의 순서이다. 용평리조트와 성우리조트 종사자의 지출행태(저축 및 송금 포함)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용평리조트 종사자는 주변중심도시에서의 지출비율이 훨씬 높으며 성우리조트 종사자는 수도권 및 기타지역으로의 송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편 수안보 숙박업체 종사자는 지역내에서 소득의 87% 정도를 지출 또는 저축하며 외부로의 유출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② 식당·소매상 등 종사자에 의한 지출흐름  
식당·소매상의 소유주는 연간 1,900~2,400만원, 종업원은 1인당 연간 860~1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자포곡리의 종사자들이 소유주 연간 2,400만원, 종업원 연간 1,200만원으로 사례지역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소득에서도 각 업체 매출액에 대한 관광객 기여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관광개발효과에 의한 부분을 계산해야 한다.

표 7. 리조트·숙박업체 종사자 1인당 연간소득 및 지출지역

구 분	연간소득 (만원)	지역내 (%)		주변중심도시 (%)		권역(도)내 (%)		수도권 (%)		기 타 (%)	
		지출	저축	지출	저축	저축	송금	저축	송금	저축	송금
용평리조트	1,278.8	20.7	6.3	53.7	10.4	0	3.6	0	3.2	0	2.0
성우리조트	1,508.9	21.8	6.3	30.6	5.4	1.8	5.3	2.4	18.2	1.0	7.1
수안보온천	1,159.7	56.9	30.1	-	-	1.5	1.0	0.8	5.1	0.1	4.5

식당·소매상 종사자들은 리조트·숙박업체 종사자들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지역내 지출비율을 보인다. 특히 사업체 소유주(경영자)의 경우 지역내 지출 또는 저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종업원은 지역외로의 송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횡계리의 종업원을 제외하고 볼 때 식당·소매상종사자들은 리조트종사자에 비해 주변중심도시로의 지출도 아주 작다는 것이다. 종사자지출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관광개발의 지역경제효과가 식당·소매상을 통해 가장 확실히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3) 연간 관광지출흐름 총량의 추정

업체당 평균으로 계산되는 관광지출흐름의 규모와 지리적 분포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출의 경로를 단계별로 추적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연간 관광지출흐름 총량의 규모와 그 지리적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1단계 관광지출흐름은 리조트·숙박업체와 식당·소매상의 매출액으로부터 추정된다. 단일업체인 리조트의 매출액은 앞절에서 사용한 사업체 매출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안보지역 숙박업체

의 총매출액은 업태별(호텔, 여관·온천장, 콘도미니엄) 객실당 원단위 매출액을 계산하여 업태별 총객실수로 곱한다. 식당·소매상으로의 관광객지출은 업종별(식당, 소매상)로 관광객으로부터 유발된 업체당 연간매출액 평균을 업종별 총수로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리조트의 지출에 의한 2단계 관광지출흐름의 항목별·지역별 총량은 리조트 본부의 지출내역으로 파악된다. 수안보지역 숙박업체의 2단계 지출흐름은 업태별 객실당 항목별·지역별 지출을 업태별 총객실수로 곱하며, 식당·소매상의 2단계 관광지출흐름은 업종별 업체당 항목별·지역별지출중 관광개발효과에 의한 부분을 업종별 총수로 곱하여 추정한다.

관광사업체 종사자에 의한 3단계 관광지출흐름 총량의 규모와 그 지리적 범위는 종사자에게 지출한 임금의 총계 또는 사업체 종사자들의 평균임금과 종사자 총수로 파악되는 종사자소득의 총계를 각 집단 종사자들 지출의 지리적 성향을 적용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즉, 수안보지역 숙박업체종사자 지출의 총액은 숙박업체 업태별 객실당 임금지출액을 업태별 총객실수로 곱하며, 식당·소매상종사자 지출중

표 8. 식당·소매상 등 종사자 1인당 연간소득 및 지출지역

구 분	연간소득 (만원)	지역내(%)		주변중심도시(%)		권역(도)내(%)		수도권(%)		기 타(%)		
		지출	저축	지출	저축	저축	송금	저축	송금	저축	송금	
횡 계	소유주	1,966	73.7	8.5	9.7	0	0	4.5	0.6	2.1	0	1.0
	종업원	891	28.3	26.4	20.2	3.7	0	11.2	1.8	7.4	0	1.0
자포곡	소유주	2,414	68.5	18.0	12.1	0	0	0.1	0	1.3	0	0
	종업원	1,183	48.5	28.8	0	0	0	5.5	17.2	0	0	0
수안보	소유주	1,921	86.0	11.2	-	-	0	0.2	0	2.0	0	0.6
	종업원	869	63.4	16.8	-	-	7.1	0.6	6.7	0.6	4.5	0.3

사업체소유주 지출총액은 업종별 평균 순이익을 업종별 업체수로 곱한다.

식당·소매상종사자 지출중 종업원지출 총액은 두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업종별 종업원 1인당 평균수입을 업종별 종업원총수로 곱하거나, 업종별 업체당 임금지출액을 업종별 총수로 곱하여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업종별 조사총수에 따라 추정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총량추정의 결과를 <표 9>에 정리하였다<sup>11)</sup>. 용평리조트 개발로 인한 1단계 관광지출흐름의 연간 총량은 모두 360억원이다. 이중 88%인 317억원이 리조트를 통해 발생하며 12%인 43억원이 주변 시가지인 횡계리의 식당·소매상을 통해 발생한다. 1단계에서 관광사업체로 유입된 360억원중 리조트의 경상외수익 85억원<sup>12)</sup>을 제외한 275억원이 2단계, 3단계 관광지출흐름을 통하여 다시 순환된다. 이중 26%가 지역내(군내), 36%가 주변중심도시(강릉), 20%가 권역내(기타 강원도)에 정착하고 수도권으로 17.5%, 기타지역으로 1%가 유출된다.

성우리조트 개발로 인한 1단계 관광지출흐름의

연간 총량은 모두 159억원이다. 이중 94%인 149억원이 리조트를 통해 발생하며 6%인 10억원이 주변 시가지인 자포곡리의 식당·소매상을 통해 발생한다. 1단계에서 관광사업체로 유입된 159억원중 리조트의 경상외수익 54억원<sup>13)</sup>을 제외한 105억원이 2·3단계 관광지출흐름을 통해 다시 순환된다. 이중 38%가 지역내(군내), 26%가 주변중심도시(원주), 9%가 권역내(기타 강원도)에 정착하고 수도권으로 23%, 기타지역으로 4.5%가 유출된다.

수안보온천 개발로 인한 1단계 관광지출흐름의 연간 총량은 모두 318억원이며 이중 67%인 212억원이 숙박업체를 통해 발생하며 33%인 106억원이 온천지 시가지의 식당·소매상을 통해 발생한다. 이중 숙박업체의 경상외수익 54억원을 제외한 264억원이 2단계, 3단계 관광지출흐름을 통하여 다시 순환되며 이중 73%가 지역내(충주시내), 14%가 권역내(기타 충북)에 정착하고 수도권으로 10%, 기타지역으로 3%가 유출된다.

표 9. 관광시설개발로 인한 연간 화폐흐름 추정

(단위: 백만원, %)

관광지출흐름	사레지역	용평리조트	성우리조트	수안보온천
관광객지출(=관광사업체 수입)(A)		35,998 (100.0)	15,914 (100.0)	31,792 (100.0)
· 리조트·숙박시설로의 지출		31,744 ( 88.2)	14,933 ( 93.8)	21,184 ( 66.6)
· 식당·소매상으로의 지출		4,254 ( 11.8)	981 ( 6.2)	10,608 ( 33.4)
관광사업체 경상외 수익(B)		8,493	5,361	5,413
관광사업체 지출(A-B)		27,496 (100.0)	10,553 (100.0)	26,337 (100.0)
· 시·군내		7,135 ( 25.9)	9,371 ( 38.0)	19,170 ( 72.7)
· 도내		15,324 ( 55.7)	3,656 ( 34.6)	3,687 ( 14.0)
· 수도권		4,799 ( 17.5)	2,411 ( 22.8)	2,697 ( 10.2)
· 기 타		238 ( 0.9)	476 ( 4.5)	823 ( 3.1)



#### 4) 분석결과와 활용

관광흐름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간 관광지출흐름의 총량과 그 지역적 분포는 몇가지 의미있는 숫자를 제공하며 또한 사례지역간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우선 관광개발로 인하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직접·간접 생산액 총량이 리조트·숙박업체, 식당·소매상 등 관광사업체의 매출액과 이들이 물자, 서비스구매, 경비지출(전기·수도·가스 등)로 발생시키는 금액으로부터 파악된다. 관광개발로써 발생한 도내 생산액은 이 항목들의 전체 권역내 부분을 합산함으로써 계산된다. 관광개발로 인한 도내 직·간접 생산액은 용평리조트지역 506억원, 성우리조트지역 185억원, 수안보온천지역 405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각각 도내총생산의 0.56%, 0.21%, 0.3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관광개발로 인한 종사자 소득발생효과와 고용유발인원 또한 추정이 가능하다. 소득발생효과는 수안보온천지역이 131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용평리조트지역 125억원, 성우리조트지역 63억원의 순서로 나타난다. 관광개발로 인한 고용유발인원은 용평리조트지역이 1,922명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성우리조트지역 1,525명, 수안보온천지역 1,162명의 순서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성수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제외하면 수안보온천지역이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가장 큰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킨다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업종구조에 있어서도 수안보온천지역은 숙박업체와 식당·소매상에 고르게 고용을 유발한다. 종사자 1인당 소득발생효과를 보면 수안보온천지역이 1,127만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용평리조트지역 650만원, 성우리조트지역 413만원의 순서이다.

이밖에 용평리조트와 횡계리 사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22억원은 평창군 지방세 징수총액의 12.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성우리조트와 자포곡리 사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4억6천만원은 횡성군 지방세 징수총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수안보온천 일대의 관광사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15억원은 충주시 지방세 징수총액의 4.9%에 해당한다.

각 단계별 관광지출흐름을 사례지역간 비교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1단계 관광지출흐름의 총량, 즉 관광사업체의 매출액을 리조트·숙박업체 객실당 원단위로 나누어 보면 용평리조트지역 3,336만원, 성우리조트지역 1,866만원, 수안보온천지역 2,131만원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성우리조트 개발로 인한 매출액이 여관까지 통틀어 평균한 수안보의 원단위 매출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개발의 역사, 주변 관련시설의 구비정도, 관광객 특성, 관광투자액 등과 관련하여 설명이 가능하다<sup>14)</sup>. 수안보온천의 경우는 총투자액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온천'이라는 측정하기 어려운 천연자원의 가치가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단계 지출흐름에서 사례지역간에 물자 및 서비스구매의 지리적 범위가 달리 나타나게 된 데에는 개발의 역사와 이로 인한 물자구매 거래처의 안정성, 수도권 및 주변중심도시의 영향력 등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물자구매면에서 볼 때, 성우리조트는 수도권에의 의존도가 높으며 구매의 지리적 범위가 좁은 반면 용평리조트는 각 지역에서 고르게 물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용평리조트가 오랜 구매역사로 인하여 안정된 물자구매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단계 지출흐름에서 사업체종사자의 지출지역을 비교하면 용평리조트와 성우리조트의 종사자들은 생활근거지 정착정도의 차이, 주변중심도시 시장흡수력의 차이 등 요인으로 서로 다른 지출패턴을 보인다고 해석된다. 용평리조트 종사자는 출신지가 어디든지 간에 기숙사 등 지역내 또는 강릉에 거주함으로써 생활근거지가 안정되어 있어 지출이 이 두 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반면에 성우리조트 종사자는 아직 지역에 밀착되어 있지 못하여 수도권 등 지역외로의 지출이 많으며 원주로의 지출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등 출신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사례지역간 비교와 그 해석은 몇 개의 예에 불과하다. 지출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분석방법과 정책방향에 있어 많은 의미있는 해석을 도출해낼 수 있다.

##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관광지출흐름분석의 가능성을 사례지역에 대한 조사로부터 검증하여 보았다. 이 방법은 관광객지출로부터 시작된 화폐의 흐름을 가능한 범위까지 추적함으로써 현실성있는 결과를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효과 분석에 의미있는 숫자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지조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서 본 연구를 위한 방법론이 사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의거해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주로 실시하였으나 사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민을 만한 자료를 제공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매출액과 지출구조는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이고 특히 매출액은 축소하여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추정한 관광지출흐름은 실제보다 작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연간 총량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통제변수(control variable)의 수를 늘려 정밀한(precise) 추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조사를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실시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업종별, 업태별, 규모별로 가능한 한 세분된 추정의 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사례조사의 숙박업체에서 적용하였던 객실당 수입·지출액과 같이 원단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범위의 분석상 문제로 관광지출흐름의 정착지역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본 분석에서 리조트·숙박업체의 경상외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밝히지 못했으며 전기·가스 등의 제경비, 지방세 등은 궁극적인 정착지를 밝히지 못하고 권역내로 처리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정교하고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광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관광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밝히기 위해 관광지출흐름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문제를 극복하여 다양한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방법 개발, 조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추출, 관광지출의 정확한 정착지를 밝히기 위한 정교하고 철저한 조사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관광개발의 효과는 단계별로 볼 때 개발전 효과, 개발중 효과, 그리고 개발후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발전 효과는 개발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원주민과 개발주체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며 부동산경기가 조성되는 등 개발붐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개발중 효과는 관광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건설인력 활용, 건축자재구매, 그리고 건설인력에게 제공되는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의 발달을 포함한다.
- 2) 지역산업연관표 추계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하여는 정준무(1994)를 참조할 것.
- 3) 관광소득 승수분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김두철(1991)을 참조할 것.
- 4)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사전조사를 거쳐 '96년 10월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맞게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주민 및 관계자 인터뷰, 현지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을 직접 만나 작성하는 면접설문조사의 형태를 띠었다. 관광사업체용 설문지 300매, 관광사업체 종사자용 450매, 관광객용 300매가 준비되었으며 이중 778매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모집단 대비 표본의 비율은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50%를 넘으며, 사업체 종사자의 경우는 리조트·숙박업체 12~29%, 식당·소매상 8~2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5) 이 매출액은 1995~1996년 기준이며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수입, 스키장, 골프장, 기타 놀이시설의 수입, 그리고 직영하고 있는 식당 및 부대시설의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 6) 황계리, 자포곡리의 각 업체에게 리조트관광객에 의한 매출액비율을 성수기, 비수기로 나누어 물어보아 가중치를 설정하여 계산함.
- 7) 여기서 분석한 서비스구분분포는 외주서비스업체 종사자의 거주지비율을 반영하였다. 즉, 서비스구매비용과 서비스업체 위치, 고용인수, 그리고 고용인 거주지를 파악하여 평균임금을 기초로 추정하였다.
- 8) 지방세 납부액중 일부는 시·군으로, 일부는 도, 일부는 중앙정부로 유입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다시 지방고부금·양여금의 형태로 지방으로 흘러가므로 지방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 9) 충주시 시세, 국세, 도세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 10) 황계리 사업체의 71%, 자포곡리 사업체 46%, 수안보 온천 사업체 83%가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 11) 지역별 연간 총관광지출흐름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1〉~〈부록 표 3〉을 참조할 것.
- 12) 적립금, 감가상각금, 기타 확인미상의 지출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이것의 2·3단계 지출흐름은 추적하지 못하였다.
- 13) 계경비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현재 모두 확장공사에 투자되고 있다.
- 14) 예를 들어 성우리조트의 투자액은 총 1,500억원으로 용평리조트 총투자액 4,4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

참고문헌

김두철, 1990, 관광지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백암온천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보, 1989, 제주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장전망: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준무, 1994, "관광개발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산업연관모형의 개발과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관광공사, 1993,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분석.

한동효, 김영성, 1986, "스포츠 위락시설의 입지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상명지리 제5권, 1-3호.

Archer, Brian, "Importance of tourism for the economy of bermud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 No. 4 (1995), pp.918-930.

Hammes, David L., "Resort development impact on labor and land marke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 No. 4 (1994), pp.729-744.

Johnson, Rebecca L. and Moore, Eric, "Tourism impact esti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 No. 2 (1993), pp.279-288.

Milne, Simon, "Tourism and development in South Pacific microstat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 No. 1 (1992), pp.191-212.

Abstract

**Impact of Tourism Development on the Regional Economy : Adopting the Tourist Money Flow Analysis**

Sungjae Choo\*

There have been several research methodologies to measure the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on the regional economy, which include input-output analysis, income multiplier analysis, labor creation effect analysis, etc. Most of these are based on regional economic indices using secondary data for medium to large regional units. This study tests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ourist money flow* analysis, which encompasses a series of money flows beginning with tourists' payment for room, board and shopping, followed by tourist companies' expenditure for material and service purchase, wage, utilities, rent, tax and so forth, and by tourism workers' expenses for living and savings. This method makes it possible to reveal the amount and geographical extent of tourist money flow and draws some meaningful regional economic figures. Case studies of three tourist developing areas show that it is utilized for impact studies for small scale areas.

**Key words** : tourism development, regional economic impact, tourist money flow, tourist companies

\*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부록 표 1. 관광개발로 인한 연간 총 관광지출흐름 / 용평리조트 · 평창군지역

(단위 : 백만원)

지출흐름 단계	지출흐름 경로		1단계 총액	2단계 총액	3단계 총액	지출흐름의 정착지					비고
						지역내	주변중심 도시	권역내	수도권	기타 지역	
1단계	리조트에의 관광객지출		31,744								
	식당소매상에의 관광객지출		4,254								
2단계	리조트 지출	경상비계		12,451		2,235	1,672	4,626	3,919	-	임금 제외
		물자구매		8,000		2,064	1,384	808	3,744	-	
		서비스구매		651		171	288	18	175	-	
		제경비		2,000		-	-	2,000	-	-	
		지방세		1,800		-	-	1,800	-	-	
	식당소매상 지출	경상외수익		8,493							저립, 감가상각, 확인 미상지출 포함
		경상비계		2,549		772	989	339	449	-	임금 제외
		물자구매		1,940		520	989	9	422	-	
		제경비		272		-	-	272	-	-	
		임대료		113		113	-	-	-	-	
세금		224		139	-	58	27	-			
3단계	리조트종사자 지출				10,800	2,923	6,927	388	341	221	
	식당소매상종사자 지출	사업체 소유주			1,011	831	98	45	27	10	식당소매상순이익분
		종업원			684	374	164	76	63	7	
계			35,998	23,493	12,495	7,135	9,850	5,474	4,799	238	
2·3단계 화폐지출중 비율(%)				100.0		25.9	35.8	19.9	17.5	0.9	리조트경상외수익을 제외한비율
리조트를 통한 2·3단계 화폐지출(%)				23,251 (100.0)		(22.2)	(37.0)	(21.6)	(18.3)	(1.0)	리조트경상외수익을 제외한비율
식당소매상을 통한 2·3단계 화폐지출(%)				4,244 (100.0)		(46.6)	(29.5)	(10.8)	(12.7)	(0.4)	

주 : (1단계 지출흐름 총액의 합 = 2단계 지출흐름 총액의 합 + 3단계 지출흐름 총액의 합)이어야 하나 현재 추정상의 오차가 10(백만원) 만큼 발생하고 있음.

부록 표 2. 관광개발로 인한 연간 총 관광지출흐름 / 성우리조트 · 횡성군지역

(단위 : 백만원)

지출흐름단계	지출흐름경로		1단계 총액	2단계 총액	3단계 총액	지출흐름의 정착지					비고	
						지역내	주변중심 도시	권역내	수도권	기타 지역		
1단계	리조트에의 관광객지출		14,933									
	식당·소매상에의 관광 객지출		981									
2단계	리조트 지출	경상비계		3,696		1,749	500	426	1,021	-	임금 제외	
		물자구매		1,668		426	257	-	985	-		
		서비스구 매		1,602		1,323	243	-	36	-		
		지방세		426		-	-	426	-	-		
	식당 소매상 지출	경상외 수익			5,361							현재 모두 확장공사에 투자됨
		경상비계			537		245	78	79	135	-	임금 제외
		물자구매			418		200	78	9	131	-	
		제경비			60		-	-	60	-	-	
		임대료			23		23	-	-	-	-	
	세 금			36		22	-	10	4	-		
3단계	리조트종사자 지출				5,876	1,653	2,118	417	1,212	476		
	식당·소 매상·종사 자 지출	사업체 소유주			210	182	25	0.1	3	-	식당·소매상 순이익분	
		종업원			234	181	-	13	40	-		
계			15,914	9,594	6,320	4,010	2,721	935	2,411	476		
2·3단계 화폐지출중 비율(%)				100.0		38.0	25.8	8.9	22.8	4.5	리조트경상 외수익을 제 외한비율	
리조트를 통한 2·3단계 화폐지출(%)				9,572 (100.0)		(35.5)	(27.4)	(8.8)	(23.3)	(5.0)	리조트경상 외수익을 제 외한비율	
식당·소매상을 통한 2·3단계 화폐지출(%)				981 (100.0)		(62.0)	(10.5)	(9.4)	(18.1)	(0)		

주 : (1단계 지출흐름 총액의 합 = 2단계 지출흐름 총액의 합 + 3단계 지출흐름 총액의 합)으로 일치하고 있음.

부록 표 3. 관광개발로 인한 연간 총 관광지출흐름 / 수안보온천·충주시지역

(단위 : 백만원)

지출흐름단계	지출흐름경로	1단계 총액	2단계 총액	3단계 총액	지출흐름의 정착지					비고
					지역내	주변중심 도시	권역내	수도권	기타 지역	
1단계	숙박업체에의 관광객지출	21,184								
	식당소매상에의 관광객 지출	10,608								
2단계	숙박업체 지출	경상비계	7,601		3,276	-	2,374	1,783	168	임금 제외
		물자구매	4,391		2,308	-	545	1,372	166	
		서비스구매	244		130	-	5	107	2	
		제경비	1,513		-	-	1,513	-	-	
		임대료	257		97	-	-	160	-	
	세금	1,196		741	-	311	144	-		
	경상외 수익	5,413								적립, 감가 상각, 확인 미상지출 포함
	식당 소매상 지출	경상비계	5,719		4,325	-	970	245	179	임금 제외
		물자구매	3,733		3,391	-	59	104	179	
		제경비	747		-	-	747	-	-	
임대료		891		718	-	74	99	-		
세금		348		216	-	90	42	-		
3단계	숙박업체 종사자 지출			8,170	7,108	-	204	482	376	
	식당소 매상종사 자 지출	사업체 소유주		3,174	3,087	-	7	62	18	식당소매 상순이익분
		종업원		1,713	1,374	-	132	125	82	
계		31,792	18,733	13,507	19,170	-	3,687	2,697	823	
2·3단계 화폐지출중 비율(%)			100.0		72.7	-	14.0	10.2	3.1	숙박업체경 상외수익을 제외한비율
숙박업체를 통한 2·3단계 화폐지출(%)			15,771 (100.0)		(65.8)	-	(16.3)	(14.4)	(3.4)	숙박업체경 상외수익을 제외한비율
식당소매상을 통한 2·3단계 화폐지출(%)			10,606 (100.0)		(82.8)	-	(10.5)	(4.1)	(2.6)	

주 : (1단계 지출흐름 총액의 합 = 2단계 지출흐름 총액의 합 + 3단계 지출흐름 총액의 합)이어야 하나 현재 추정상의 오차가 2(백만원) 만큼 발생하고 있음.

